

에게서 / 한테서

~에게서 — 사람이나 동물이 출처

짝이 되는 표현은 에게 / 한테입니다. 서를 붙이면 그 사람이 도착점이 아니라 출처가 됩니다.

■ 결합 방법

사용역	형태	예
구어	한테서	친구한테서 들었어요
문어, 격식	에게서	선배에게서 배웠습니다
높임 출처	께	선생님께 배웠어요
장소에는	대신 에서	회사에서 받았어요
반말 구어	서를 자주 생략	친구한테 받았어요
자주 쓰는 동사	받다, 듣다, 배우다, 빌리다	동생한테서 빌렸어요

■ 언제 쓰나요

에서가 무언가가 온 장소를 나타낸다면, 에게서와 한테서는 그 출처가 되는 사람을 나타냅니다. 두 형태에서 서는 똑같이 출발점을 표시합니다. 한테서는 구어, 에게서는 문어에서 씁니다.

주로 받다, 듣다, 배우다, 빌리다, 얻다처럼 받거나 배우는 뜻의 동사와 함께 씁니다. 친구한테서 책을 빌렸어요.

연습하기 전에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. 일상 대화에서는 서를 빼고 친구한테 받았어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. 동사만으로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혼동이 생기지 않습니다. 다만 문장만으로 뜻이 전달되어야 하는 글에서는 서를 붙이세요.

■ 예문

- 1 친구한테서 소식을 들었어요.
- 2 부모님께 용돈을 받았어요.
- 3 누구한테 배웠어요?
- 4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.
- 5 회사에서 메일이 왔어요.
- 6 선배한테서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.

■ 비교

에게 / 한테

서가 없으면 그 사람이 받는 쪽이고, 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주는 쪽입니다. 대개 동사를 보면 어느 쪽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.

친구한테 줬어요. (친구에게 주었다) / 친구한테서 받았어요. (친구에게서 받았다)

에서

역할은 같지만 출처의 종류가 다릅니다. 장소와 기관에는 에서, 사람과 동물에는 에게서나 한테서를 씁니다.

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. /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.

께

서로 끝나는 높임 형태는 없습니다. 출처가 높여야 할 대상이면 께 하나로 양쪽 방향을 모두 나타내고, 나머지 공손함은 동사가 담당합니다.

선생님께 배웠어요. (선생님에게서 배웠다) / 선생님께 드렸어요. (선생님에게 드렸다)

■ 주의

✗ 회사한테서 연락을 받았어요.

○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어요.

기관은 장소로 취급합니다. 한테서와 에게서는 사람과 동물에만 쓰세요.

✗ 선생님한테서 배웠어요.

○ 선생님께 배웠어요.

한테서는 높여야 할 사람에게 쓰기에는 너무 가볍고, 출처를 나타내는 께서 형태도 없습니다. 께가 양쪽 방향을 모두 담당합니다.

✗ 친구한테서 선물을 줬어요.

○ 친구한테 선물을 줬어요.

주다는 무언가를 밖으로 보내는 동사이므로 친구는 출처가 아니라 도착점입니다. 서를 빼세요.